

정보전으로 본 아랍-이스라엘 전쟁 역사: 1948~1973년

박 현 도 (서강대학교)
(hyondo@sogang.ac.kr)



국문요약

이 논문은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정보전의 실패라는 배경 이해를 돕고자 1948년부터 1973년까지 4차례에 걸친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역사를 정보전 측면에서 설명한다. 2023년 10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이스라엘군 정보당국의 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침공 1주일 전 이집트 정보당국이 건네준 첩보도 무시하여 하마스의 기습 침공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1973년 제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요르단의 첩보를 무시한 역사적 실수를 다시 범한 셈이다. 이스라엘의 정보력은 제1~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에서 진가를 발휘하였지만, 4차 전쟁에서는 정보전에 실패하여 곤욕을 치렀다. 이 논문은 1948년부터 1973년까지 4차례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정보 판단의 측면에서 조망한다.

주제어 : 간첩, 아랍,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정보, 팔레스타인, 하마스

I. 들어가는 말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공습 대응이라는 기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방식과는 달리 하마스 지상군이 직접 이스라엘에 침범하여 28개 마을을 점령하고 약 1,200명의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인을 살상하였다. 1973년 10월 6일 이집트군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시작한 제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래 50년 만의 전쟁임을 강조하여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5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랍-이스라엘 분쟁은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세계시온주의자 협회(World Zionist Congress)가 발족하면서 싹을 틔웠다. 1881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Aleksándr II Nikoláyevich 1818~1881)가 암살당한 후 유대인이 황제를 살해했다는 낭설로 시작된 포그롬(Pogrom 유대인 박해)과 이에 따른 유대인의 알리야(Aliya 팔레스타인 이주), 1894년 프랑스에서 유대계 프랑스 장교 드레이퓌스(Alfred Dreyfus 1859~1935)가 독일에 군사 기밀을 넘겨주었다는 누명을 쓰고 체포된 후 프랑스를 휩쓴 반유대주의 물결이 유대인의 탈(脫)유럽 팔레스타인 이주라는 흐름을 만들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발 후 오스만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영국은 이집트 고등판무관 맥마혼(Vincent Arthur Henry McMahon 1862~1949)과 오스만 제국령 메카 통치자 후세인(al-Hussayn bin Ali al-Hashimi 1854~1931)이 서로 주고받은 편지에서 아랍인이 영국을 도와 오스만제국과 싸우면 아랍 국가 건설을 약속하였다. 영국은 또 1917년에 유대인 부호이자 영국 유대인협회 지도자였던 로스차일드(Lionel Walter Rothschild 1868~1937)에게 팔레스타인에 유대인 국가(a national home for the Jewish people)를 세워주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상호모순된 이 두 약속과는 별도로 영국은 프랑스와 1916년 5월 16일 오스만제국의 아랍지역 영토를 나눠 갖고, 팔레스타인은 국제공동관리구역으로 지정한 소아시아협정(The Asia Minor Agreement), 즉 사이크스-피코 협정(The Sykes-Picot Agreement)을 은밀하게 맺었다.

제1차 세계대전 승전국이 된 영국은 기존 아랍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을 국제연맹으로부터 위임통치령으로 받아 유대인 이주민을 수용하였다. 압도적 다수의 아랍인 사회에 유럽에서 유대인이 이주해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아랍인과 유대인의 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유대인 이주민이 유대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시온주의자였기 때문이다. 시온주의 아래에서 유대인과 아랍인의 평화로운 공존은 불가능하였다. 영국은 팔레스타인을 위임통치하면서 결국 아랍-유대인 공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해결책을 유엔에 떠넘겼고, 유엔은 아랍인의 반대에도 영토 분할안을 만들었다. 5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유엔은

1947년 11월 29일 아랍과 이스라엘 분할안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30일 투표에서 찬성 33표, 반대 13표, 기권 10표, 불참 1표로 분할안을 통과시켰다. 아랍은 유엔 분할안에 처음부터 반대하였으나 총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통과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 글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해를 돕고자 1947년 분할안 통과 이후 1973년까지 총 4차에 걸친 아랍-이스라엘 전쟁의 배경과 진행 과정 및 파장을 정보전 측면에서 정리한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침공 이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는 하마스의 움직임이 수상하다는 이스라엘군 정보당국의 보고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다. 또, 침공 1주일 전 이집트 정보당국이 건네준 첩보도 무시하여 이집트 정보부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준 정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정도다(Agencies 2023). 정보를 무시한 결과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다. 이스라엘 정부의 정보 판단 실패는 2023년 하마스 침공 때만의 일은 아니다. 50년 전인 1973년 이집트가 기습 선제공격할 때도 이집트군의 특이한 동향 관련 정보를 취합하였음에도 분석에 실패하였고, 요르단 후세인 국왕이 직접 전하여 준 정보(Middle East Monitor 2023; Ridel 2017)마저 무시하여 전쟁 발발 초기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

5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정부는 정보전에 실패하였다. 4차에 걸친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다룬 선행연구는 상당히 많이 축적된 상태다. 이 논문은 기존 연구에서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나 해석을 제시하기보다는 전쟁 대강을 종합하며 정보전 성격을 부각하여 설명한다. 국내에는 최근 아랍-이스라엘 전쟁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중동전쟁』(임용한·조현영 2022) 외에는 4차례의 전쟁을 종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없고, 정보 측면을 상세히 다루지 않았기에 이 논문이 미력이나마 아랍-이스라엘 전쟁 이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II. 1948년 제1차 전쟁

아랍이 거부한 1947년 UN 분할안에 따르면 아랍의 영토는 현재 문제인 가자지구를 비롯해 요르단강 서안지구, 북부지역까지 포함하여 총면적의 40%로, 이스라엘이 차지한 60%보다는 작지만, 이스라엘 영토의 반 이상은 네게브 사막이기에 아랍에 불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랍은 굳이 쪼개지 않아도 될 땅을 유대인과 나누었으니 상실감이 컸다.

유엔 분할안이 통과된 후 12월부터 1948년 1월까지 2달간 아랍인과 유대인의 충돌로 무려 1,000여 명이 죽고 2,000여 명이 다쳤다(United Nations 1948). 3월 말에는 사망자와 부상자가 2배로 뛰었다(사망자 2,000명, 부상자 4,000명)(Gelber 2006). 그런데 유엔

분할안이 상정되기 한 달 전인 1947년 10월에 당시 하가나(Hagana) 참모총장 이스라엘 갈릴리(Yisrael Galili 1911~1986)는 혼란 상황에 이어질 전쟁을 다음과 같이 내다보고 있었다(Karsh 2002).

“우리가 아는 한, 이슬람 법학자들은 테러나 토요일 저녁 극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로 폭탄을 투척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시작하는 거다. 왜냐하면, 의심할 것도 없이 유대인이 반응할 것이고, 반응에 대한 반응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일이 터져 결국 전국이 동요하여 혼란이 일어나고 이웃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돕기 위해 ‘성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선언을 하자마자 그날 밤부터 전선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의 지원을 받은 아랍연맹 7개국 중 5개국 이집트,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지역으로 전격 침투하였다(Gelber 2006). 시리아와 이집트는 유엔 분할안 비아랍지역으로 진군하였고(Khalidi 2006). 요르단은 분할안 지역 중 예루살렘 구도시 유대인 지역과 같이 아직 담당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으로 들어갔다.

전쟁 직전 팔레스타인 아랍인을 제외한 인근 아랍 국가의 참전병은 약 23,000명으로 추산되었다. 이집트 10,000명, 요르단 4,500명, 이라크 3,000명, 시리아 3,000명, 아랍연맹 지원자 3,000명, 레바논과 사우디 1,000명 등이 직접 참전할 것으로 보였다. 반면 이스라엘은 하가나 35,000명, 민병대 3,000명, 수천의 무장 주민이 전쟁에 투입될 수 있는 병력이었다(Kurzman 1970). 전쟁 직전인 5월 12일 참전할 아랍군의 규모, 병력과 능력을 과대평가한 참모들은 벤구리온(David Ben-Gurion 1886~1973)에게 이스라엘이 잘해야 비길 것이라고 말했다(Morris 2004).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랍군은 이스라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이스라엘도 사실상 아랍의 능력을 기늠할 수 없었기에 아랍 국가의 선전전을 그대로 믿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수밖에 없었다(Morris 2004).

아랍 연합군이 내건 공식적인 전쟁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Morris 2004).

“팔레스타인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일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주민들이 법 앞에 완전한 평등을 누리고, 소수민들은 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나라에서 인정하는 모든 것을 보장받는 나라다.”

“아랍연맹이 팔레스타인 분할 유엔 결의안 181호를 반대하는 것은 분할안이 국제연맹규약과 유엔헌장의 세부 조항에 따라 아랍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의 안보와 질서가 무너졌다. 시온주의자들의 공격으로 25만 명 이상의 아랍 주민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 이웃 아랍 국가에 난민으로 들어왔다.”

시리아군과 레바논군은 북쪽에서, 요르단군과 이라크군은 동쪽에서 진입하여 갈릴리에 집결한 후 하이파(Haifa)로 진격하고, 이집트군은 남쪽에서 텔아비브 쪽으로 진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각 군간 협력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Karsh 2002). 사실상 병력의 효율성과 규모 면에서 아랍군은 이스라엘을 능가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가장 뛰어난 아랍군은 요르단군이었을 것이다(Pollack 2002). 아랍군은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의 의도대로 요르단에 중요한 지역인 요르단강 서안과 동예루살렘에만 공세를 집중하였다. 잘 조율된 전쟁 계획은 시작부터 부재했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아랍의 전쟁 진행 상황은 팔레스타인 독립국 건설이라는 전쟁의 대의와는 거리가 멀었다.

2차례에 걸친 휴전을 거쳐¹⁾ 1949년 정전협정이 이루어졌다. 관련 당사국이 별도로 협정을 맺었다. 이스라엘-이집트는 2월 24일, 이스라엘-레바논은 3월 23일, 이스라엘-요르단은 4월 3일, 이스라엘-시리아는 7월 20일에 각각 협정을 체결하였다.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유엔 분할안보다 1/3 많은 영토를 차지하였다(Reich 2004). 이집트는 가자지구,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가졌다. 이스라엘은 인구의 1%인 6,000여 명의 전쟁사망자가 생겼고, 이 중 군인은 약 4,000명이었다(Garfinkle 2000). 사망자를 6,373명으로 집계하기도 하고, 아랍 측 사망자는 10,000명 정도로 추산한다(Jewish Virtual Library, n.d.).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독립전쟁이라고 부르지만, 아랍인들은 ‘재앙(안나크바 al-Nakba)²⁾’이라고 부른다. 수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지를 잃고 난민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겠다는 확고한 목표와 의지를 지닌 유대인과 달리 아랍인은 범아랍민족주의에 기대었다. 같은 아랍어를 쓰는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요르단, 이라크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다. 각기 정치적으로 독립한 이들 나라는 서로 힘을 합쳐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을 단박에 쓸어버릴 수 있다는 엄청난 자신감을 보였으나 이스라엘 독립을 저지하지 못하였다. 여러 아랍 국가에 둘러싸여 고립무원 상태에서 배수진을 친 이스라엘은 1차 전쟁이 끝난 후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유엔 분할안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독립과 더불어 유엔에 정식 국가로 가입하는 선물까지 얻었다.

1) 1차 휴전은 1948년 6월 11일에서 7월 8일까지, 2차 휴전은 1948년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루어졌다.

2) 아랍어 정관사 al은 뒤따라오는 단어의 첫 자음에 따라 음이 바뀌기도 한다. 자음이 n으로 시작하면 정관사 al은 an으로 발음한다.

Ⅲ. 1956년 제2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수에즈운하 전쟁

제2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1956년 7월 26일 이집트가 수에즈운하 국유화를 선언한 지 3개월 후인 10월 29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합동 공격함으로써 발발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선제공격한 지 하루 만에 영국과 프랑스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최후통첩을 보낸 후 카이로를 폭격하였다. 이틀에 걸친 공격은 사전에 공모한 결과물이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하고, 프랑스가 찬동한 후 영국이 가장 늦게 합류하였다 (Time 1956). 영국과 프랑스는 수에즈운하를 자신들의 통제권 아래에 두고 이집트 나세르의 실각을 노렸으나, 미국과 소련의 압력에 굴복하여 연말에 병력을 철수하였다. 이스라엘은 이듬해 3월까지 군사를 주둔하였고, 결국 티란(Tiran) 해협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물러섰다.

국제적으로는 미소 냉전 시대 상황에서 벌어진 상당히 중요한 전쟁이지만,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제2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팔레스타인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전쟁이다. 냉전 시대 이집트를 두고 벌인 미소 간 경쟁이 오히려 두드러지었다. 미국은 나세르(Gamal Abdel Nasser Hussein 1918~1970)가 소련 쪽에 붙는 것을 가장 경계하였다. 수에즈운하 국유화로 인해 소련이 가장 이득을 보리라 생각하였다. 이집트와 서구, 아랍과 서구, 더 나아가 서구 국가 간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길 가능성을 내다보았다. 그러나 당시 미국 정보당국은 아랍민족주의를 내건 나세르가 영국의 제국주의를 소련의 제국주의와 맞바꾸지는 않으리라 보았고, 이는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10월 24일, 런던주재 미국 대사는 영국 국방장관이 정부의 이집트 공격 계획에 항의하여 사임하였다고 워싱턴에게 급히 알렸다.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는 감지하였지만, 프랑스 총리, 영국 외무장관, 이스라엘 총리가 10월 22~24일에 세브르(Sèvres)에서 이미 만나 나세르 공격 계획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다(Aldrich 2001). 삼국의 이집트 공격을 나중에 알게 된 미국의 충격은 실로 대단하였다. 아이젠하워(Dwight David Eisenhower 1890~1969) 미 대통령은 이든(Anthony Eden 1887~1977) 영국 총리와 벤구리온 이스라엘 총리에 대해 극도의 배신감을 표현하였다. 아이젠하워와 이들은 상당히 친밀하였다. 아이젠하워는 이든과 벤구리온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벤구리온은 아이젠하워에게 이스라엘이 영국과 프랑스에 합류하여 반나세르 전선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다짐하였던 차였다. 미국은 완전히 속았다(Aldrich 2001; Wilber 1954).

미국은 분노하였지만,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못하였다. 삼국이 사전에 공격을 공모하였다고 믿지 않는 여론이 컸기 때문이다. 사실 삼국은 이후 여러 해 동안 공모한 적이 없다고 계속 부인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먼저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공격했다고 거듭 강변하였다. 특히 수에즈 침략을 두고 영국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 관계가 형성되었기에 공모 부정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었다.

미국과 소련의 압력으로 인해 삼국은 결국 수에즈에서 철수해야만 하였다. 개인적으로 아이젠하워의 공로를 인정하였지만, 나세르는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용하지 못하였다. 그가 조금만 더 현명하였더라면 미국을 극찬하여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려놓았어야 하였지만, 나세르는 침묵하였고, 오히려 소련이 미국에 찬사를 보내면서 마치 나세르와 소련이 보기보다 더 친한 사이라는 인상을 남겼다. 이처럼 나세르가 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이 미국 내 이스라엘 지지자들은 여론을 친이스라엘, 반아랍이라는 틀로 가져갔고, 이러한 여론의 골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IV. 1967년 제3차 전쟁: 6일 전쟁

제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공군력을 파괴하는 기습 공격으로 시작하여 6일 만인 6월 10일에 끝났다 하여 6일 전쟁으로 유명하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막대한 전과를 올렸다. 우선 시리아로부터는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Golan)고원을 빼앗아 지금까지 점령하고 있다. 갈릴리 호수 해발 900m 높이의 골란고원에서 시리아는 이스라엘 쪽 농촌을 포격했는데, 화근을 없앤 셈이다.

이집트로부터는 시나이반도와 가자지구, 요르단으로부터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지를 포함한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탈취하였다. 시나이반도는 이집트와 평화협정을 맺은 후 1982년 반환하였고,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1993년 9월 오슬로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자치가 시작되었다. 가자지구는 바로 하마스가 장악하여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점이다. 3차 아랍-이스라엘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영토를 무려 3배로 확장하였다.

제1차 전쟁은 대재앙이었고, 제3차 전쟁은 좌절이다. 1967년 6월 5일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한 제3차 전쟁에서 아랍은 처참하게 좌절했다. 아랍의 가장 큰 패착은 불필요한 전쟁을 했다는 점이다. 당시 아랍은 이스라엘이 군사력을 결집한다는 소련의 오정보를 그대로 믿고 이스라엘이 도발을 준비한다고 여겨 군을 동원하였다. 이에 이스라엘은 아랍 측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여겨 선제공격하였다. 오정보 때문에 아랍이 군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에 선제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요세프는 미국과 이스라엘 측의 비밀 해제된 문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이집트가 소련의 오정보로 인해 전쟁을 초래한 것이지,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음모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Yossef 2006). 이스라엘은 이미 주변 아랍 국가의 움직임을 휴민트 정보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6일 전쟁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집트와 시리아 군사정보 취득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정보전에 뛰어든 기관은 군 정보당국인 아만(Aman)과 해외정보담당인 모사드(Mossad)였다. 이집트와 시리아 군사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는데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였기에 기습선제공격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었다.³⁾

1. 이집트

이스라엘이 6일 전쟁 전 이집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정보원은 볼프강 로츠(1921~1993 Johann Wolfgang Lotz, 히브리명 Zeev Gur Arich)다 (Lotz 1972, 1980; Howard 2013; Kahana 2006; Melman 2007). 이스라엘 정보부는 로츠를 “카이로에 있는 텔아비브의 눈(Tel Aviv’s Eye in Cairo)”이라고 불렀다(Kahana 2006).

또 이스라엘은 이집트군 내에 프락치를 심었다(Thomas 1999). 6일 전쟁 이전부터 모사드는 이집트의 모든 군사기지과 사령부 내에 캣차(katsa)라고 부르는 정보원을 두고 있었다. 공군 조종사의 세세한 취향, 심지어는 기지 내 식당까지 오는 시간까지 파악하는 정보원을 장교식당에 심어놓기까지 하였다. 장교식당에 종업원으로 일자리를 얻은 캣차는 기지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하였다. 최고 참모부에도 3명의 장교가 이스라엘 프락치였다. 정보요원들은 이집트 군인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모사드 요원을 만드는 공작을 벌였다. 또 익명의 서신이나 전화로 민감한 신상정보를 가족이나 동료에게 누설하였다. 모사드의 이러한 공작은 이집트 군내에 상당한 분열을 조장하였고, 이로 인해 고위 장교가 자살하기까지 하였다. 1967년 초 나세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준비한다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이집트 내 이스라엘 정보망은 정보제공자의 수를 더 늘리고자 시도하였다. 아울러 모사드는 이집트 공군기지 공격 최적 시간을 산출했다.

3) 6일 전쟁을 다룬 책이나 논문은 셀 수 없이 많다. 정보에 관한 내용이 쉽게 잘 정리된 책을 몇 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Katz(1991); Black and Morris(1991); Raviv and Melman(1990); Steven(1980); Eisenberg et al.(1978); Deacon(1977).

또한 ‘뱀 작전(Operation Yated)’이라고 명명한 정보전에서 이집트가 이스라엘에 심어 놓은 첩자를 역으로 이용하여 역정보를 흘렸다(Melman 2011). 이집트는 1955년 리파트 알-가말(Rifat al-Gamal)을 자크 비통(Jacques Bitton)이라는 이집트 유대인으로 위장하여 이스라엘에 간첩으로 보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그를 체포하여 이중 첩자 역할을 하게 만들었고, 6일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 지상군이 이집트를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오정보를 이집트 정보당국에 흘렸다. 이 때문에 이집트는 전투기를 기지 활주로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고, 결국 이스라엘 공군이 6일 전쟁을 시작하자마자 이집트 공군기를 궤멸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군 정보국인 아만(Aman)의 154부대(현재는 504부대로 불림)는 6일 전쟁 발발 이전에 부대원을 남부 이스라엘에서 당시 이집트가 지배하고 있던 시나이반도로 침투시켜 유목민 부족민을 정보원으로 확보하였다(Melman 2011). 이집트에 대한 충성도가 희박하였기에 쉽게 돈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 일종의 휴민트인 셈인데, 이들이 이스라엘에 가져다준 정보는 대단히 유용하였다. 유목민에게 당시 최고급 카메라를 지급하고 작동법을 상세히 교육한 후 이집트군을 몰래 촬영하게 하였다. 이들이 제공한 사진은 시나이반도 군 기지와 병력 이동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였고, 무엇보다도 공군기지 사진은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정확하게 폭격하는 데 수훈갑이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이기에 이들은 시나이반도 지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집트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기에 재물로 쉽게 매수할 수 있었다.

6일 전쟁 전부터 이스라엘은 이집트 공군의 훈련 양태를 완전하게 숙지하였다(Black 1991). 6월 4일 공군 사령관이 이츠하크 라빈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바에 따르면 2주 동안 이집트 공군이 움직이는 시간을 정확히 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이집트 공군은 여명이 밝으면 순찰 비행을 하며 한 시간 체공하다가 기지로 돌아와 아침을 먹고, 7시부터 8시 사이는 모든 것이 정지되기에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각을 7시 45분으로 꼽았다.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집트 공군기를 공격한 시간이 바로 7시 45분이다. 또 한 비행기가 하루 2번 출격하는 데 반해 이스라엘은 한 대당 4번 출격하는 연습을 계속하였고, 이를 실전에 그대로 활용하였는데, 이 때문에 지금도 아랍 국가는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을 정도다.

6일 전쟁 개전일 새벽 4시경 이스라엘 전투기 조종사들은 7시 45분에 이집트 전역에 걸쳐 있는 11개 목표물을 공격할 것이라는 명령을 전달받았다. 첫 공격 시작 두 시간 동안 197대의 이집트 공군기가 완파되었고, 6개 기지가 폐쇄되었다. 6일 전쟁 기간에 이스라엘은 18개에 달하는 이집트의 공군기지를 공격하여 전투기 420대 중 300대를 파괴하고, 조종사 350명 중 100명을 죽였다.

2. 시리아

뛰어난 정보원으로 이집트에 로츠가 있었다면 시리아에는 코헨(Eli Cohen 1924-1965)이 있었다(Black 1991; Kahana 2006; Eisenberg 1978). 말 그대로 이 둘은 모사드가 이웃 아랍 국가에 심어놓고 벌인 정보전에서 보석과 같은 역할을 한 정보원 콤비였다. 모사드는 코헨을 “다마스쿠스의 우리 편(Our man in Damascus)”이라고 불렀다. 무엇보다도 코헨은 이스라엘 건국 이래 이스라엘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골란고원을 시리아로부터 빼앗아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정보원으로 추앙받고 있다. 1963년에 코헨은 시리아 상류사회에 안착하였고 이스라엘에 민감한 정보를 전송하였다. 코헨이 수집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골란고원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시리아는 물길을 막아 이스라엘로 가는 수원을 차단하려고 하였다. 골란고원에서 나오는 물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로 들어간다. 요르단강 상류에서 갈라져 나오는 지류는 단(Dan), 바니아스(Banias), 하스바니(Hasbani)이다. 갈릴리 호수는 이스라엘 수자원의 젖줄이어서 1960년대에 이스라엘은 갈릴리 호수에서 나오는 물을 파이프라인을 통해 건조한 국토에 대는 관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를 통해 수자원이 절대 부족한 건조한 남부 지역을 살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리아가 이를 방해하며 아랍 국가 내 요르단강의 흐름을 바꾸어 이스라엘이 수자원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세웠다. 소련은 기술을 지원하고 나섰다. 이스라엘에는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었다. 코헨은 시리아의 수로 차단 계획을 알아내어 이스라엘에 보고했다. 1964년 초 코헨은 요르단의 주요 수원인 바니아스 강으로부터 물을 받기 위해 수로를 파서 요르단으로 물길을 돌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 알렸고, 이스라엘 공군은 공사 현장에 동원된 불도저와 중장비를 파괴하여 수로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또한, 코헨은 1948년부터 6일 전쟁 전까지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데 요긴하게 이용한 전략적 요충지 골란고원을 방문하는 기회를 얻었다. 당시 골란고원은 군사기밀지역으로 군 고위층만이 둘러볼 수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고위층과 친분을 이용하여 코헨은 고위 군 간부의 안내를 받으며 골란고원 군사 기밀 지역 곳곳을 시찰하였고, 요새와 공격용 무기가 은폐된 곳을 하나하나 숙지하며 보고하였다. 시리아는 15km에 달하는 방어진지를 구축하였는데, 이 모든 사실을 코헨의 정보로 이스라엘은 파악할 수 있었다(Hammel 1992).

군 간부가 코헨에게 요새를 설명하자 코헨은 이스라엘군을 속이고 뜨거운 태양 빛으로부터 장병을 보호하고 경관을 아름답게 하려면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였고 시리아군은 이러한 제안을 따랐다. 그 결과 이스라엘군은 6일 전쟁 때 유칼립투스

스가 있는 곳에 요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공습하여 골란고원의 시리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History Channel, n.d.). 골란고원은 이스라엘 수자원의 30%를 차지하는 실로 국가생존에 중요한 곳이다.

3. 감청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뛰어난 도청 능력을 발휘하여 적국 수뇌부의 움직임을 간파하였다. 개전 2일째 되는 날 이집트 나세르 대통령과 요르단 후세인 국왕이 나는 대화를 감청했는데 이를 보면 아랍 국가의 방비 태세가 허술하였고 전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미 이집트의 공군력은 궤멸 상태였는데도 나세르는 후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미국과 영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것으로 말을 맞추려고 한다.

나세르: 안녕하십니까. 후세인 형제께서 전선 상황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편에 서서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를 공개적으로 알릴까요? 미국과 영국이, 아니면 미국이 참전하고 있다고 말할까요?

후세인: 미국과 영국.

나세르: 영국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세인: (잘 안 들림)

나세르: 좋습니다. 후세인 국왕과 제가 각각 발표하지요. 시리아도 미국과 영국 전투기가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고 발표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아침부터 우리 전투기가 이스라엘 공군기지를 공격하는 중입니다(New York Times 1967; Bregman 1998).

이 두 지도자의 대화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던 장비로 두 명의 군 정보요원이 감청한 것이다. 또 개전 2일째 오후 2시에도 정보국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밀리자 나세르가 시나이 주둔군에 수에즈운하 지역으로 퇴각하라고 내린 명령을 감청하였다. 덕분에 이스라엘군은 3일 후 골란고원 공격을 시작할 수 있었다. 또, 이집트군 암호를 알아내서 지상군과 공군의 작전에 혼선을 주었다. 알아낸 암호로 이스라엘군은 이집트 공군 미그기 조종사에게 이스라엘군 대신 바다에 폭탄을 투하하라고 명령하였다. 조종사가 의문을 제기하자 이스라엘 정보장교는 조종사 아내와 가족의 신상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 믿게끔 했고, 결국 조종사는 폭탄을 지중해에 투하하고 낙하산으로 안전하게 탈출하였다.

또 이집트 장교로 위장한 이스라엘 정보요원이 시나이반도에서 이집트군 대대 병력을 이스라엘군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명령한 뒤 휴전이 되자 포로수용소로 자연스럽게 인도하였다. 시나이 주둔 이집트군에 이스라엘 공격 전선을 오정보로 흘려 기다리게 한 뒤 이스라엘군이 다른 곳으로 안전하게 우회하여 수에즈운하로 진격한 것 역시 정보전의 힘이었다. 이와 아울러 반드시 지적해야 할 사항은 이집트군의 허술함이다. 이집트군은 제2차 중동전에서 쓰던 군사 암호 체계를 변동하지 않고 6일 전쟁에서도 사용하여 참패의 빌미를 제공하였다.

4. 이라크 미그기 탈취

6일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이 올린 전과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은 1966년 8월 이라크 공군 조종사 무니르 레드파(Munir Redfa)가 소련제 미그 21기를 몰고 이스라엘로 망명을 한 사건이다(Black 1991). 당시 이스라엘 공군뿐 아니라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들은 세계 최고의 능력을 갖춘 첨단 신형 소련제 미그 21기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애를 쓰던 중이었다. 이스라엘은 이 신형 전투기가 이웃 아랍 국가에 배치되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모사드는 ‘다이아몬드 작전(Operation Diamond)’이라고 명명한 정보전을 통해 미그기를 이스라엘로 가져올 방도를 구상하였다. 모사드는 1964년 이라크 유대인 유수프(Yusuf)를 정보원으로 삼아 당시 이라크 공군 최고의 조종사 중 하나였지만 마론파 그리스도교인이라는 이유로 진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레드파에 접근하는 데 성공하였다. 모사드 여성 요원이 미인계를 써서 레드파를 유혹하였고 레드파는 자신의 일가족 전체를 이라크에서 이주시킨다는 조건으로 미그기를 몰고 이스라엘로 망명하는 데 합의하였다. 물론 보상금으로 미화 100만 달러를 제공하였다. 8월 16일 레드파는 이라크를 빠져나왔고, 요르단 상공을 거쳐 이스라엘 공군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에 착륙하였다. 이스라엘은 소련의 반환 요구를 거절하고 이후 미국에 빌려주는 형식으로 인도하였고, 그 대가로 미국은 인도하기를 주저하던 F-4 팬텀기를 주었다.

모사드의 미그기 탈취 작전은 아랍 국가 공군보다 열세로 평가되던 이스라엘 공군의 전투력을 증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미그기를 분석하여 대비 훈련을 하였고, 결국 이듬해 1967년 4월 7일 골란고원 상공에서 벌어진 시리아 공군과의 공중전에서 시리아 공군 미그기 6대를 격추하면서도 이스라엘 주력기인 프랑스제 전투기 미라주(Mirage)를 단 한 대도 잃지 않은 것은 바로 모사드 정보전의 업적이었다.

V. 1973년 제4차 전쟁

1973년 10월 6일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제4차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린다. 10월에 벌어진 전쟁이라 10월 전쟁이다. 또 무슬림 단식 월인 라마단 월이었기에 라마단 전쟁이다. 욘키푸르, 즉 유대교 속죄의 날에 벌어진 전쟁이라 욘키푸르 전쟁이라고 한다. 미국과 소련의 중재로 10월 22일 휴전이 성립되었다.

성공적인 아랍의 기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개전 초기 연패를 당하였다. 후반으로 가면서 만회하기는 했지만, 아랍인의 마음속에서 4차 전쟁은 승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 치명적인 정보전 실패의 교훈을 남겨준 쓰라린 전쟁이다. 48시간 전에 적의 침투를 감지한다는 이스라엘의 신출귀몰 정보력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무너진 전쟁으로 이스라엘 정보당국에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1967년 3차 전쟁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이집트는 소모전을 벌여 이스라엘을 시나이 반도에서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소모전을 시도하면서 이스라엘을 자극하였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반격으로 충돌의 규모를 커져 이집트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1970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전략적인 공습을 가하자, 이집트는 이에 맞서기 위하여 소련으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들여왔다. 그러나 1970년 7월 30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집트 공군과 공중전을 벌여 이집트 공군기를 5대나 격추함에 따라 소모전이 종식되었다. 소모전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700명이 죽고, 2,700명이 다치었다. 물론 이집트를 위시한 아랍 측의 피해는 3~5배에 달하였다(Dupuy 1978).

1970년 9월 나세르가 사망하였다. 나세르의 후임자 사다트(Muhammad Anwar al-Sadat 1918~1981)는 1971년을 “결정의 해”하고 선언하였다. 이스라엘을 시나이반도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1971년이 지나갔다. 다음 해 7월 사다트는 소련 군사고문단 2만 명 이상을 추방하였다.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 1972년 말 사다트는 소련으로부터 증강된 무기를 받는다는 협약을 체결하였고 1973년 초 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전쟁을 가능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다(The Insight Team of the London Sunday Times 1974). 사다트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이 견디기 어려웠다.

이스라엘은 향후 아랍과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다. 첫째, 이집트가 공중전에서 이스라엘을 압도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것이다. 둘째, 시리아는 이집트 없이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Cohen 1990). 이집트는 적어도 1971년, 1972년, 1973년 세 차례 전쟁 준비를 하였다. 전쟁이 임박하지 않았다는 군

정보국의 보고에도 이스라엘 당국은 1,100만 불이 소요되는 군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Herzog 1975). 그런데 아랍 측은 이스라엘을 압도할 만한 공중전 능력을 최신 비행기가 장거리 미사일로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공군을 위협할 수 있는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과 스킨드 미사일을 도입하였다.

사다트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태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다. 전쟁 일 년 전인 1972년 10월 그는 참모들을 소집하여 소련에서 무기가 오면 이스라엘과 제한전이라도 벌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고, 이에 반대하는 국방장관을 해임하기까지 하였다. 무력으로 상황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였다(El-Sadat 1978).

1973년 10월 3일, 전쟁 3일 전 사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바로 오늘 10월 3일 오후 4시, 나는 우리의 의도가 지금부터 잘 드러난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우리의 움직임은 보면 우리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들은 어떠한 의혹도 마음에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밤 안다고 해도, 병력을 동원하여 선제공격한다고 해도 우리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다.”(Herzog 1975). 사다트는 이스라엘의 정보력을 과대평가하였다. 전쟁 60시간 전에 자신의 발언을 알아차리리라 생각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 당일 오전 4시 30분까지 전쟁의 징후를 예견하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정보당국의 오판이었다. 분명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움직임을 포착하였지만, 전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보력 부재였다. 특히 결정권을 가진 고위층에서 오판한 것이다. 전쟁 발발 10일 전인 9월 25일 요르단 후세인(al-Hussayn bin Talal 1935~1999) 국왕은 직접 헬기를 몰아 이스라엘로 가서 골다 메이르(Golda Meir 1898~1978) 총리를 만나 시리아가 골란고원을 수복하고자 이스라엘을 공격하리라는 정보를 전해주었다. 당시 요르단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도 시리아가 요르단을 지역으로 군을 이동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면 전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정보를 주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요르단 국왕의 정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보 판단 실패의 또 다른 좋은 예는 시만-토브(Siman-Tov)라는 정보장교의 보고가 무시되는 과정이다. 시만-토브는 10월 1일 이집트군의 움직임이 전쟁 준비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10월 3일 다시 자료를 보충하여 보고서를 올렸다. 그러나 보고서가 모두 무시당하였다. 전쟁 준비가 아니라 이집트군의 훈련이라는 정보당국의 평가와 상반된 보고서였기 때문이다(Shlaim 1976).

미국 정보당국은 아랍의 움직임을 잘 읽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집트와 시리아가 전쟁에 전격적으로 뛰어드리라고는 판단하지 못하였다. 전반적으로 보면, 정보 보고는 충실히 이행되었다.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정보 보고를 무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정보를 잘 못 해석한 것이 문제였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정리해 볼 수 있다(Penney 2013).

첫째, 이스라엘의 안보태세에 대한 정보를 이스라엘에 지나치게 의존하였다. 미 정보당국은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적의 공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급한 경우 미국에 도움을 호소하리라 믿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잘못이었다. 또 미국 정보분석가들이 이스라엘의 자국 안보에 관한 판단을 무시하기도 어려웠다.

둘째, 편견이 걸림돌이었다. 1973년 전쟁에 관한 정보를 평가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진실이라고 믿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없었다는 점이다. 1967년 6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전과, 아랍군의 비효율성과 무능 인상이 너무 커서 아랍이 위협을 무릅쓰고 전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그 누구도 판단하지 못하였다. 또 아랍 측이 전술 전략적으로 현대전에 능숙하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며 선제공격을 시도하여 정보분석가를 놀라게 하지는 못하리라는 믿음이 강하였다.

셋째, 정보에 대한 낡은 분석 문제다. 사다트의 도발적인 언사가 이스라엘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본 것이다. 전쟁 직전 2년 동안 사다트는 이스라엘과 평화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을 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한마디로 거짓말을 협상 책으로 썼다고 본 것이다. 골란고원과 수에즈운하 지역의 아랍군 동향이 과거 여러 해 지속해 온 군사훈련의 일환이라고 해석한 것도 같은 맥락의 낡지만 그럴듯한 해석이었다.

넷째, 외교력에 대한 믿음이다. 1967년 이래 미국은 외교력과 불편한 교착상태가 전쟁 발발을 막는 방법이라고 보았다. 사다트가 “결정의 해”라고 부른 1971년이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1973년 5월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이집트의 도발을 막은 후 미국은 전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겼다.

다섯째, “이성적 행동자”의 오류다. 서구의 여러 정보분석가는 사다트도 아사드도 패배할 전쟁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았다. 이른바 “이성적 행동자” 모델의 문제점은 분석가들에게는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나 분석가들의 문화 속에서는 이성적으로 보이더라도 분석의 대상이 되는 행동기들에게는 이성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다트나 아사드에게는 순전히 군사적인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이스라엘을 치는 것은 비이성적이지만, 아랍인의 자존심을 회복하거나 아랍에 유리한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도록 타국에 압력을 가한다는 측면에서는 전쟁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끝으로 여섯째, CIA 내 문제다. 전쟁에 대한 오판은 전쟁 직전 CIA 조직 내부의 인사이동과 같은 내부 변화에도 책임이 있다. 당시 윌리엄 콜비(William Egan Colby 1920~1996) CIA 국장은 정보평가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였는데, 이로 인해 전쟁이 발발한 10월에도 조직이 어수선한 상태였다. 중동 정보를 다루는 분석가와 고위 책임자들이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이들 자리를 현안에 밝지 못한 사람으로 채워지다 보니 정보 판단에

공백이 발생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임박했다는 정보를 여러 차례 입수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전쟁 발발 초반을 하였고, 설상가상 정치적 판단으로 국가안보에 실패하였다. 가장 극적인 전쟁 정보는 10월 4일 입수하였다. 공군 정보기가 시나이반도 이집트군의 움직임이 이상한 것을 간파하였다. 다양한 대포들이 결집하고 있었고 5개 사단 병력이 운하를 건널 채비를 하는 것을 본 것이다(Cohen 1990). 또 오후에는 소련 고문단의 가족이 이집트를 떠나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날 밤 이스라엘군 정보당국은 소련기가 가족을 태우러 오는 것을 감지했다(Bar-Joseph 1995b).

새벽 2시 모사드의 정보원은 모사드에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긴급 만남을 요청하였다. 이에 모사드 책임자가 정보원을 만난 후 군 정보당국에 이를 알렸다(Bar-Joseph 1995b). 소련 함정이 항구를 떠나는 것도 파악되었다. 군 정보당국은 소련이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전쟁 당일 새벽 4시 군 정보당국은 모사드로부터 다시 최고 정보원이 전하는 전쟁 경고 정보를 받았다(Bar-Joseph 1995b). 시리아군 장교들이 레바논에 있는 친지들에게 당분간 시리아로 오지 말라는 전화가 감청되면서 전쟁이 임박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었다(Bar-Joseph 1995b).

그러나 정부 지도자들 간 이견이 있었다. 선제 공습과 군 총동원을 주장하는 측과 이러한 대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후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스라엘이 전쟁 도발자라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 부분 동원령이 10시에 결정되었지만, 대규모 전쟁임을 안 후 비로소 총동원령이 전쟁 발발 당일 오후 늦게서야 결정되었다. 전쟁 초반 이스라엘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처럼 정확한 정보 판단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제4차 전쟁에서 이집트도 시리아도 제3차 전쟁에서 빼앗긴 시나이반도와 골란고원을 되찾지 못하였다.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집트는 시나이반도를 이스라엘로부터 반환받았다. 가자지구는 이스라엘이 계속 점령하였다. 1994년 요르단도 이스라엘과 평화를 이루었지만, 요르단강 서안은 돌려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은 골란고원과 평화협정을 맞바꾸려 하지만, 시리아는 줄곧 거부하며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Ⅵ. 나가는 말

1948년 제1차 전쟁부터 1973년 제4차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랍과 이스라엘이 얻은 교훈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전쟁을 계속할 수 없기에

1979년 캠프데이비드 평화협정, 1995년 이스라엘-요르단 평화협정, 199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오슬로 평화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평화를 갈구하던 지도자는 모두 목숨을 잃었다. 1979년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1981년 10월 6일 제4차 전쟁 승전 기념식장에서 군 사열을 받는 도중 이슬람 극단주의 소속 군인들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과 역사적인 평화협정을 맺은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 역시 1995년 유대인 극우주의자의 총에 목숨을 잃었다. 라빈 총리 사망 이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는 더는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1967년 6일 전쟁 참패를 겪으며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더는 아랍 형제들에게 기대어 국가를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 지칠 줄 모르는 투쟁으로 오슬로 협정까지 끌어냈지만, 1994년 자치정부를 세운 이후 서안지구의 파타흐와 가자지구의 하마스로 완전히 분리되었다. 그 결과 1948~1973년 아랍-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분쟁을 거쳐 2006년부터는 온전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진화하였다. 그리고 50년 만에 다시 전쟁이 발발하였다.

이스라엘은 처음 3차례 전쟁에서 탁월한 정보력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러나 1973년 제4차 전쟁에서는 자국군과 요르단 국왕이 직접 전해준 정보를 긴요하게 여겨 분석하는 데 실패하였다. 2023년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 애써 무시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50년 전에도 있었다. 결과는 크게 다를 바 없다. 선제공격을 받아 막대한 피해를 본 후 전열을 가다듬어 반격으로 전세를 뒤집는 같은 유형의 전쟁 양상이 벌어졌다. 50년 전과 유사한 것은 미국마저 하마스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전쟁 발발 8일 전인 9월 29일 제이크 셸리번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은 중동 평화를 낙관하면서 “중동지역은 지난 20년보다 현재가 더 평온하다”고 하였다(Atlantic 2023). 모든 관심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수교에 몰리면서 하마스의 수상한 움직임은 전혀 간파하지 못하였다.

이스라엘이나 미국 모두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수교에 바탕을 둔 중동 평화를 밀어붙였다. 양국 수교에 가장 큰 걸림돌인 팔레스타인 문제도 어느 정도 건설적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으나 정확하지는 않다. 다만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하마스가 설 땅은 없었을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스라엘도, 하마스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3년 G20 정상회담(9월 9일~10일)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하고자 미국 주도 아래 독일, 아랍에미리트, 유럽연합, 이탈리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프랑스는 인도에서 바닷길로 아랍에미리트에 이르고 다시 철로를 이용하여 사우디아라비아-요르단-이스라엘을 거쳐 다시 선박으로 유럽까지 잇는 인도-중동-유럽 경제회랑 건설에 합의하였다(Cafiero 2023). 10일 후인 9월 20일에는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매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수교가 다가왔음을 암시하였다(Fox News 2023; Aljazeera 2023). 이틀 후인 9월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역사적인 평화라는 더 극적인 돌파구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밝혔다(Haaretz 2023).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로 먼저 아랍 국가와 수교한 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신의 해법이 실현되는 순간에 와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네타냐후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하여 2020년 아랍에미리트, 바레인과 백악관에서 맺은 아브라함 협정이 완성되면, 이스라엘이 98%의 비팔레스타인 아랍사람들과 친구가 되기에 2%에 지나지 않는 팔레스타인 아랍인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환상을 버릴 수밖에 없기에 팔레스타인에 평화가 온다고 믿었다(Haaretz 2023).

그러나 하마스의 공격으로 네타냐후의 꿈의 열차는 일단 멈췄다. 하마스의 움직임과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정보력 부재와 정보분석 실패가 발목을 잡았다. 50년 전과 같은 실수를 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휴민트 정보 취합 대신 인공지능에 의존한 정보분석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수교에 몰입하여 애써 정보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정보 실패는 전쟁이 마무리된 후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여러모로 분석이 이루어져야 실상이 드러날 것이기에 향후 연구과제로 삼는다.



- 임용한 · 조현영. 2022. 중동전쟁: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 레드리버.
- Agencies. 2023. Egypt Intelligence Official Says Israel Ignored Repeated Warnings of ‘Something Big’, The Times of Israel, October 9. URL: <https://www.timesofisrael.com/egypt-intelligence-official-says-israel-ignored-repeated-warnings-of-something-big/>
- Aljazeera. 2023. Saudi Crown Prince MBS Says Israel Normalisation Getting ‘Closer’, Aljazeera, September 20. URL: <https://www.aljazeera.com/news/2023/9/20/saudi-crown-prince-mbs-says-israel-normalisation-getting-closer>
- Aldrich, Richard J. 2001. The Hidden Hand: Britain, America and Cold War Secret Intelligence. John Murray.
- Arab League. 1948. Declaration on the Invasion of Palestine. URL: <http://www.webcitation.org/5v5scvum7>
- Atlantic. 2023. How Democracy Can Move Forward, With Jake Sullivan and Will Hurd, The Atlantic Festival 2023, The Atlantic, September 30. URL: https://www.youtube.com/watch?v=-_qxXIHDDDB0
- Bar-Joseph, Uri. 1995a. Israel’s Intelligence Failure of 1973: New Evidence, a New interpretation,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Security Studies 4, no. 3 (Spring): 595-596.
- Bar-Joseph, Uri. 1995b. The Wealth of Information and the Poverty of Comprehension: Israel’s Intelligence Failure of 1973 Revisited, Intelligence and National Security 10, no. 4 (October).
- Black, Ian and Benny Morris. 1991. Israel’s Secret Wars: A History of Israel’s Intelligence Services. Hamish Hamilton.
- Bregman, Ahron and Jihan El Tahri. 1998. The Fifty Years War: Israel and the Arabs. Penguin Books.
- Cafiero, Giorgio. 2023. What India's Economic Corridor Means for the Middle

East, The New Arab, September, 13. URL:

<https://www.newarab.com/analysis/what-indias-economic-corridor-means-middle-east>

- Cohen, Eliot A. and John Gooch, 1990. *Military Misfortunes: The Anatomy of Failure in War* Free Press.
- Deacon, Richard, 1977. *The Israeli Secret Services*. London: Hamish Hamilton.
- Dupuy, Trevor N. 1978. *Elusive Victory: The Arab-Israeli Wars, 1947-1974*. Harper and Row.
- Eisenberg, Dennis, Uri Dan, and Eli Landau, 1978. *The Mossad, Israel's Secret Intelligence Service: Inside Stories*. Paddington Press.
- El-Sadat, Anwar, 1978. *In Search of Identity*. Harper & Row.
- Garfinkle, Adam M. 2000. *Politics and Society in Modern Israel: Myths and Realities* M. E. Sharpe.
- Gelber, Yoav, 2006. *Palestine 1948: War, Escape and the Emergence of the Palestinian Refugee Problem*. Brighton and Portland: Sussex Academic Press.
- Fox News, 2023. *Gppd Negotiations: Saudi Crown Prince Says Every Day Is A Day Closer to Peace with Israel*, Fox News, September 22. URL: https://www.youtube.com/watch?v=Y_u8ghPr3HE
- Haaretz, 2023. *Full Text: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s 2023 UN General Assembly Speech*, Haaretz, September 22. URL: <https://www.haaretz.com/israel-news/2023-09-22/ty-article/full-text-benjamin-netanyahus-2023-un-general-assembly-speech/0000018a-bd3c-d490-adca-fdff21270000>
- Hammel, Eric, 1992. *Six Days in June: How Israel Won the 1967 Arab-Israeli War*. Simon & Schuster.
- Herzog, Chaim, 1975. *The War of Atonement, October 1973*. Little, Brown and Co.
- History Channel, no date. *Battlefield Detectives: The Six-Day War*. URL: <https://youtu.be/g7XbLMDR-r8?si=g8f9ru7XAyqRexVn>

- Howard, Roger. 2013. Operation Damocles: Israel's Secret War Against Hitler's Scientists, 1951-1967. Pegasus Books.
- Jewish Virtual Library. no date. Total Casualties, Arab-Israeli Conflict. URL: <http://www.jewishvirtuallibrary.org/jsource/History/casualtiestotal.html>
- Kahana, Ephraim 2006. Historical Dictionary of Israeli Intelligence. Lanham, Toronto & Oxford: The Scarecrow Press.
- Karsh, Efraim 2002. The Arab-Israeli Conflict: The Palestine War 1948. Oxford and Osprey Publishing Ltd.
- Katz, Samuel M. 1992. Soldier Spies: Israeli Military Intelligence. Novato, CA.: Presidio.
- Khalidi, Rashid. 2006. The Iron Cage: The Story of the Palestinian Struggle for Statehood. Beacon Press.
- Kurzman, Dan. 1970. Genesis 1948: The First Arab-Israeli War. New American Library.
- Lotz, Wolfgang. 1972. The Champagne Spy: Israel's Master Spy Tells His Story. St. Martin's Press.
- Lotz, Wolfgang. 1980. A Handbook for Spies. Harper & Row.
- Melman, Yossi. 2007. Double Dad, Haaretz, March 9.
URL: <http://www.haaretz.com/weekend/magazine/double-dad-1.215093>
- Melman, Yossi. 2011. How Israel won the Six-Day War, Haaretz, March 31.
URL: <http://www.haaretz.com/print-edition/features/how-israel-won-the-six-day-war-1.353213>
- Middle East Monitor. 2023. Jordan King Hussein's Extensive Contact, Intelligence Sharing With Israel Prior to 1973 War. Middle East Monitor, September 12. URL: <https://www.middleeastmonitor.com/20230912-jordan-king-husseins-extensive-contact-intelligence-sharing-with-israel-prior-to-1973-war/>
- Morris, Benny. 2004. The Birth of the Palestinian Refugee Problem Revisit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ew York Times. 1967. Israelis Say Tape Shows Nasser Fabricated ‘Plot’: Recording Said to Be of Phone Call to Hussein Gives Plan to Accuse U.S. and Britain. New York Times, June 9, 17.
- Penney, Matthew T. 2013. Intelligence and the 1973 Arab-Israeli War, in President Nixon and the Role of Intelligence in the 1973 Arab-Israeli War. Yorba Linda, CA.: Richard Nixon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 Pollack, Kenneth M. 2002. Arabs at War: Military Effectiveness, 1948-1991. Lincoln, Nebraska: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Raviv, Dan and Yossi Melman. 1990. Every Spy a Prince: The Complete History of Israel’s Intelligence Community. Houghton Mifflin.
- Raviv, Dan and Yossi Melman. 2012. Spies against Armageddon: Inside Israel’s Secret Wars. Sea Cliff, NY.: Levant Books.
- Reich, Bernard. 2004. Israeli Foreign Policy, in Leon Carl Brown ed.,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Regional and Outside Powers. I. B. Tauris.
- Ridel, Vruce. 2017. Enigma: The anatomy of Israel’s Intelligence Failure Almost 45 Years Ago. Brookings (September 25).
URL: <https://www.brookings.edu/articles/enigma-the-anatomy-of-israels-intelligence-failure-almost-45-years-ago/>
- Shlaim, Avi. 1976. Failures in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s: The Case of the Yom Kippur War, World Politics 28(3), 353-354.
- Steven, Stewart. 1980. The Spymasters of Israel. New York: Macmillan.
- The Insight Team of the London Sunday Times. 1974. The Yom Kippur War. Doubleday.
- Thomas, Gordon. 1999. Gideon’s Spies: The Secret History of the Mossad. 5th ed. St. Martin’s Press.
- Time. 1956. How Britain France and Israel Got Together, Time, Monday, Nov. 12.
- United Nations. 1948. Special UN Commission (16 April).

- Wilber, Donald N. 1954. Overthrow of Premier Mossadeq of Iran: CIA Clandestine Service History. CS Historical Paper No. 208.
- Yossef, Amr. 2006. The Six-Day War Revisited, Working Paper,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University of Trento.

● 투고일: 2024.01.24. ● 심사일: 2024.02.05. ● 게재확정일: 2024.02.19.

| Abstract |

A Brief History of Arab-Israeli Wars, 1948 to 1973: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Warfare

Park Hyondo (Sogang University)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the history of the four Arab-Israeli wars from 1948 to 1973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warfare. In doing so, it provides a context for understanding how the Israel-Hamas war that broke out on October 7, 2023, was an Israeli failure in information warfare. Israel's Netanyahu government failed to consider seriously Israeli military intelligence regarding suspicious movements by Hamas, and ignored intelligence from Egypt a week before the invasion that caused heavy casualties. This is in line with Israel's disregard for Jordanian intelligence during the 1973 War, whereas Israeli intelligence had proven effective in the previous three wars in 1948, 1956, and 1967. To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alysis, and judgment, this paper discusses the four Arab-Israeli wars from 1948 to 1973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warfare.

〈Key words〉 Arab, Arab-Israeli War, Hamas, Intelligence, Israel, Palestine, Spy